

데스크 시국



홍행기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

“이달 들어 광주·전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 남은 기간 동안 호남의 지지 열기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대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광주·전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일정 마무리 후 몇몇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들려준 자체 평가다.

지금은 막강막하 '박빙 구도'지만

실제로 최근 이 지역 선거 분위기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듯하다. 경쟁이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 이후 지금은 침체됐던 지역 민심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서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매타버스 일정 동안 지역민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가는 곳마다 이 후보를 눈으로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휴일이었던 지난달 28일 광주 언론인들을 만난 자리

'이재명 민주당'의 불가피한 선택

에서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도 "광주, 정말 감사합니다. 위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릴 정도였다. 가라앉았던 민주당의 분위기 반전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대선후보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두 자릿수 이상 뒤졌던 조사 결과는 지난달 중반 이후 점차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이 '동률'이라는 여론조사도 일부 등장했다. '이번 대선은 막강막하 박빙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 '골든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다.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하던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까지 그리 따뜻한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수도권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출향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전해오는 이야기들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었다. '대전환이 없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방침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적혀 있다.

'위기가구의 근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집 없는 시민에겐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일 테고, 집 가진 사람에게 세금폭탄이 불만일 것이다.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여당엔 좋지 않은 변수다. 비판적으로 본다면, 터져 나올 곳을 찾지 못해 쌓여만 가는 불만들이 여당에 대한 분노로 모습을 바꿔 투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의 분위기가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 정부와 차별화로 승리 노린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재명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대선을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부동산세 완화 방침이나 탈원전 정책 재검토 등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에 대한 분명한 거리 두기다. 이는 현 정부 정책에 거부감을 표시해 온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후보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국토보유세까지 철회한 것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이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층으로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 할 만하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진정성'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과 차별화를 내세우고, 주요 정책을 수정·보유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이 확인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현 정권과의 차별화는 단순히 과거를 부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과거 실책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에서 시작해, 편협한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차별화'의 관건일 것이다.

은편칼럼

인구 감소 극복 위해 외국인 귀화 지원해야



임명재 약사

인구 감소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간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손실도 심각하다.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대학교 입학 정원이 훨씬 많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해당 대학의 교수 및 직원들은 물론 학습·복지 등 지역 상권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초등학교 역시 늘어선 학생 수가 적어서 유지하기가 어렵고, 신도시에 지어지는 학교는 과잉 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방력과 경제력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결혼을 하고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약국에도 갓 결혼한 여성 근로자가 있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과 그에 따른 건강 문제, 출산 이후에 육아에 대한 대안이 마련

되지 않자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출산 휴직에 대한 지원과 출산 휴가 등에 대해서 협의해 봤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산에 따른 휴직과 이에 따른 급여 문제, 그리고 출산 후 복직에 이르는 전반적인 대책을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기업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출산 휴가나 복직을 실행하는 것이 세금이나 고용 면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도 공무원들처럼 출산 및 육아 휴직, 복직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인 뒷받침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육아 문제도 도우미를 지원하거나 아이를 근무 시간 동안 맡아서 키워 주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필자가 2000년 초반 광주 서구의원으로 일할 때 방문한 일본 마치다시는 유아와 노인인 대한 복지 정책이 잘 수립되어 있어서 한때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 아울러 외국인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한국인과 전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이나 정착

지원금 등 특단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면 지역사회의 공무원으로도 적극 선발해야 한다.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한 지구에 모여서 살도록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기획된 지구의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국내외에서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군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인원을 할당하여 취업을 하고 귀화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로마가 그랬고 몽고가 그랬다. 근대에는 영국과 같은 나라가 비록 식민지 정책이었지만 다양한 인종과 국가에 국력을 전파하면서 강국이 되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겨우 5000여만 명이고 북한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더라도 7000여만 명에 불과하다. 내수 경기만으로 기업의 활동을 유지하려면 최소 1억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려면 외국인을 귀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북방 민족들을 귀화시켰고 심지어 임진왜란 이후에도 왜인들이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벼슬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다.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북방 민족들을 귀화시켰고 심지어 임진왜란 이후에도 왜인들이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벼슬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다. 이제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고

가로수 관리, 교통안전을 생각할 때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제작년 대전광역시시는 유성대로 일부 구간에 심어진 가로수 150여 그루를 일제히 제거했다. 이 구간은 2000년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됐는데 당시 도로변에 멋지게 자라있던 버즘나무를 제거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많은 시민들의 염원으로 살아남은 버즘나무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드는데 일조했지만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됐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 구간에서만 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3명이 다쳤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 가로수들이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이 역주행을 하는 등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가로수로 인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례도 방송에서 종종 보도된다. 특히 고속도로 역주행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역주행은 주로 운전자가 진출입로를 착각하고 잘못 진

입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 앞에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가로수나 잡목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가 오는 날이나 야간에는 더욱 그렇다. 잘 관리된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국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 가로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 치기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의 목적은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환경 조성, 보행자 불편 해소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종 도로 표지판 가림, 전선 및 통신시설물 접촉 등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로수는 생육이 활발한 여름철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교통 약자가 다수 이동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마을 보호구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 간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교통안전에 고려한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나섰다. 국민권익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속도 제한, 진입 금지 등 중

요한 안전 표지를 가린 사례를 파악해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라남도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전남경찰청(21개 경찰서), 전라남도(22개 시·군)와 협업해 12월까지 전라남도 관내 주요 안전표지를 가리는 가로수 390여 곳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가 사업을 총괄·점검하고 전남경찰청이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 속도, 통행금지, 주차금지 표지 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전수 조사한다. 전라남도는 조사 결과를 받아 시·군과 함께 가로수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또 가로수의 순기능도 고려해 가로수가 꼭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표지를 잘 보이는 곳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역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때부터 기관 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내년에 전국 16개 시·도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일 것이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 사업으로 교통안전은 확보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치열했던 삶' 송기숙 선생님 편히 잠드소서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치열하게 붓으로 헤쳐 온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가 잇고 제 숙환으로 별세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 왔기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별세 소식을 듣고는 복받치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삼가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1년간 복역한 뒤 석방되었지만 선생은 다른 교수들과 달리 복직이 되지 않은 채 5·18을 맞았다. 그리고 시민권 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또다시 구속되어 1년을 복역하게 된다. 교수로 있던 전남대에서도 쫓겨나 남인 생활을 하는 등 아픔을 겪었던 선생은 해직 6년 만인 1984년 복직했으며, 2000년 8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후학을 가르치며 소신을 쓰는 일을 병행했다.

소설가로서 많은 문학작 업적을 남겼던 송 교수는 그러나 그보다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선생은 군사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문학작가회의 의장을 지내고 한국현대사 자료연구소장, 전남대 5·18연구소 소장,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도민연대 상임대표 등으로 가열차게 사회 참여를 했다.

특히 선생은 '교육지표 사건'과 5·18민중화운동과 관련해 두 차례 해직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우선 1978년, 전남대 교수 10명과 함께 성명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연행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유신 정권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선생은 청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암태도'를 집필하기도 했다.

민중의 수난을 '붓과 행동으로 헤쳐 온 참 지식인', 서울 퍼린 유신정권 아래서도 두려움 없이 행동했던 '행동하는 지식인',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셨지만 선생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나마 편히 잠드시기를 기원한다.

국내 최초의 5·18 연구단체인 한국현대사 자료연구소(현 전남대 5·18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아 그가 1987년에 펴낸 '5·18 광주민중항쟁사료집전집'은 지금도 5월 민중항쟁을 연구하는 귀중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지 2만5천 장 분량의 이 책에는 광주항쟁 참여자 700여 명의 구술 증언과 기타 자료 등이 담겼다.

세계양궁대회 발판 아시안게임까지 유치

광주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세계양궁연맹이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확정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2 현대 양궁월드컵도 광주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간 광주를 방문할 내외국인은 참가 선수단의 열 배가 넘는 1만 3500명으로 전망되는 등 부수 효과도 적지 않다. 광주는 이미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저비용·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낸 바 있다. 덕분에 영국의 한 스포츠마케팅전문가가 당시 광주를 국제 스포츠 영향력 세계 27위, 아시아 6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대회 유치에는 역대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연이어 배출한 '양궁 메카' 광주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 시민의 양궁 열기와 광주국제양궁장 등 수준 높은 경기 시설 등도 밑거름이 됐다. 광주는 특히 '5·18 민주광장'을 결승전 장소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엘리트 선수층 육성을 위한 지원과 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충은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착실한 준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구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 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90여 개국, 1100여 명 선수와 임원 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대회 기

無等鼓

우리의 전통 소리인 판소리나 민요 따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소리꾼들이 JTBC의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에서 매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국악 경연이 아닌 판·국악과 양악 등이 결합된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충분한 역량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듯 진화하는 전통 문화예술 속에서도 젊은 소리꾼들의 애환은 여전했다. 설 무대를 잃어 가면서 소리를 그만둬야 하는 젊은 청년 소리꾼의 고민, 이에 따른 생활고, 무명의 서러움 등이다. 이는 우리 국악이 외면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경연에서 판소리, 민요, 정가 등 한국 전통 음악을 전공한 이들이 시원하게 뿜어내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운몽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다. 기

다며 한국이 자랑하는 공예품의 자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경연에 나온 소리꾼

'현대판 풍류'

중 두각을 나타낸 소리꾼들의 대부분이 남도 출신이라는 사실도 남도 소리의 대중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도는 전통문화 유산의 보고(寶庫)다. 따라서 남도의 젊은 소리꾼들이 우리 전통 국악도 계승하면서, 국악이 현대 감각과 융합해 재탄생할 수 있는 특정한 인프라와 기반이 필요한 때다.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 전통문화를 되살리면서 퓨전국악의 대중화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으면 한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타로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고, 가야금으로 미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인 컨트리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은 환상적이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출연자들은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에 락과 랩, 팝송과 트롯, 발라드 등을 입혀 더욱 흥을 돋운다. 어느 장르 하나 국악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 여기에 장곡 연가까지 섞이면서 '현대판 풍류'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있다. '범 내려온다'는 곡으로 대박을 친 퓨전 국악밴드인 이날치 밴드가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듯이 경연에 나선 소리꾼들도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